

청소년들이 읽을만한 책

출판협회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11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1년 8~9월분으로 다음 11종(11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철학(2종) 문학(3종) 역사(2종) 사회과학(2종) 순수과학(2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1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81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이 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상철(아동문학가) ▲과학·기술=현원복(한국과학사회연구소장) ▲종교·철학=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하현강(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송복(연세대 교수)

산길이 보이는窓

李正林 지음



7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수필)를 통해 등단 첫수필집 「당신은 타인이어라」를 펴냈던 작가의 두번째 작품집.

전 작품집에서 가려 뽑은 6편의 작품을 비롯해 모두 1백편이 실린 이 수필집은 작품을 성격으로 분류하지 않고 발표연대 순으로 엮고 있어, 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하는 재미를 준다. 아카시아 같이 어여쁜 이웃집 새색시에 얽힌 어릴적 추억을 그린 「아카시아 꽃술」, 사람의 생김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얼굴」 등 짧은 이야기 속에 간결한 문체와 정감어린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구성된 작품집 말미에는, 김소운 시인과 정혜옥·정목일·반송자씨의 수필세계를 진단한 평론 5편과 수필문학에 대한 단상을 옮긴 글 3편도 함께 실었다.

범우사 / A5신 / 364면 / 4500원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나가사와 가즈도시 지음 / 이재성 옮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국제교역로로 알려진 실크로드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평이하게 소개한 책.

오아시스의 농경민과 초원의 유목민이 싸웠던 전쟁터로 동·서양의 진귀한 물품이 오가던 상인들의 길로 유명한 실크로드를 따라 이모저모를 살피고 있는 이 책은 일반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를 피해 서술한 반면에 연구입문서로도 읽히도록 상세한註를 달아놓은 것이 큰 특징. 모두 14장으로 나누어 유명한 서역여행가인 장건·법현·송운·현장, 그리고 마르코 폴로 등의 발자취도 기술했을 뿐더러 아직까지 정설화되지 않은 몇가지의 새로운 견해를 피력했다. 동서교섭사의 새로운 진단을 시도하고 있는 이 책에는 '동서문화의 교류연표'와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補註)도 덧붙여졌다.

민족사 / A5신 / 306면 / 4500원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지음 / 김윤식·오인석 옮김



컬럼비아 대학의 인류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고 「문화의 위협」 「종족」 등의 저서를 펴낸 저자가 44년 미국무성의 위촉을 받아 일본 문화의 틀을 파헤친

저서.

단순한 기행문이나 인상기가 아닌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평균적인 일본인들의 행동과 사고의 형태를 탐구하고 있는데 보다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계층제도에 대한 분석. 그 계층제도가 근대화사회로 옮겨오면서 어떤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가를 고찰한 제3장 「메이지 유신」에, 국화와 칼이라는 두가지의 극단적인 상징이 말해주듯 일본인들의 독특한 문화와 국민성을 고찰한 미국 학자의 시각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단 한번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어 학문연구에서는 오히려 그 대상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것이 엄밀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을유문화사 / A5신 / 288면 / 3500원

알고보면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한국통계학회 엮음



통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개념과 기법들을 실제의 응용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했다.

신문이나 TV 등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갖가지 통계자료의 이해는 물론 사회과학·의학·공학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는 통계응용사례를 엮은 이 책은 이야기 형식을 빌어 풀어 쓴 통계학서로 어려운 학문으로 통하는 이 분야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재창(고려대 통계학) 김병천(한국과학기술원 응용수학과) 임성곤(통계청 통계기준과장) 등 모두 19명의 통계학 전문가들이 집필했는데, 총론적인 '숫자놀음과 통계의 함정'을 비롯해 그래프와 비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글, 그리고 여론조사·일기예보·물가·주가지수 등을 바로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

자유아카데미 / A5신 / 252면 / 5000원

잃어버린 과학의 작은 선물

박송 외 지음



틀에 박힌 체계와 원리만을 집약시킨 교과서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연의 법칙을 화학·지학·물리·생물편으로 나누어 개념설명과 과학자들의 일화를 섞어 설명한 재미있는 과학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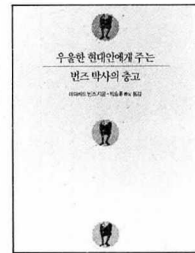
특히 이 책은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손으로 씌어진 것으로, 박송(서울고 화학) 박찬선(서울고 지구과학) 이동욱(「세계로 열린 창」 편집인 물리) 이상인(서울고 생물)씨 등이 분야별로 연구해 공동집필했다. 돌턴의 원자설과 게이 루삭의 기체반응의 법칙을 다협적인 가설로, 즉 같은 온도와 압력의 부피 속에는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수의 입자(분자)가 존재한다고 증명한 아보가드로의 일화 등 재밌고 신비한 과학의 세계가 펼

쳐진다.

청암 / A5신 / 314면 / 4000원

우울한 현대인에게 주는 번즈박사의 충고

데이비드 번즈 지음 / 박승룡 옮김



정신치료나 약물치료와 함께 우울증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인지요법'의 효용을 정리해 엮은 책.

마음이 산란할 때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

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훈련시켜서 윤택함을 되찾고 더욱 생산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정신치료요법인 인지요법을 개발·완성시킨 저자는, 무기력·무가치감·불안·죄의식 등 우울증 특유의 고통스러운 기분을 자기존중적 사고방식을 통해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문제해결과 대처의 기법은 작은 분노로부터 큰 정서적 붕괴에 이르는 현대생활의 모든 위기를 망라하고 있으며, '자기평가 테스트' '자기도움 양식과 도표' 등을 실어 기분수정 접근방법인 인지요법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문예출판사 / A5신 / 458면 / 6000원

어린이가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

존 자브나 지음 / 노혜숙 옮김



더이상 방관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지구 그리고 갈수록 파괴되는 생태계로 인해 요즘들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50가지의 오염추방 행동요령을 모아 소개했다.

먼저 산성비·수질오염·오존층의 파괴·온실효과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의 파괴에 대한 설명을 붙인 이 책은 지하자원에 대한 이야기와 수질오염에 대한 이야기, 야생 동물 이야기, 수목림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나뉘어 꾸며져 있다. 무심코 내버린 쓰레기, 알게 모르게 흘려보낸 페수, 편

리성만을 생각해 사용하는 1회용 컵 등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며, 재충전 건전지를 사용한다거나 뜨거운 물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 등을 어린이들에게 당부한다.

현암사 / A5신 / 208면 / 2800원

엄마! 사랑해요

문화방송 교양국 엮음



올해로 제6회째를 맞은 문화방송 주최 '나의 사랑스런 어머니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으로 뽑힌 글 20편을 모아 어린이들에게 맞게 편집한 수

기모음.

어머니 세대가 겪어온 어려움과 그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으로 좌절하지 않고 끈뚱하게 버텨온 의지, 그리고 진실과 사랑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삶의 지표로 삼게 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이 책에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한없는 모성애가 편편이 새겨져 있다. 국민학교 5학년때 입은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8년의 시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호하고 지켜준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적은 강신은 씨의 「색바랜 목주」, 남편을 잃고 세탁소에서 일하며 3남매를 대학까지 보낸 장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성만씨의 「감사의 꽃 한송이」 등의 글이 실렸다.

명서원 / A5신 / 188면 / 3000원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김동길 외 지음



서정주 시인을 비롯한 문인들과 대학교수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기억하고 인생의 지표로 삼은 글귀나 말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는 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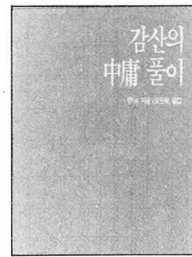
유명인사 99명의 짧은 글이 수록된 이 책은 83년에 출판된 것을 재편집 출간한 것인데, 열 아들보다 나은 딸이 되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는 유안진교수(서울대 가정대)의 글이 첫번째 이야기. 34년 무렵 수행하던 중 석전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담배 하나 못 끊는가"라는 편찬을 듣고 새삼 모든 일에 정진하게 되었다는 미당의 글이나 영국의 전래동요인 '거위 어머니'에 나오는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귀절이 인생의 신실한 반려가 되었다는 리영희교수(한양대)의 글도 실려 있다.

오늘 / A5신 / 310면 / 4000원

감산의 中庸풀이

憨山 지음 / 오진탁 옮김



명나라의 인물로 참선수행을 하며 「장자」 「노자」 등에 대한 연구서를 남긴 저자가 선을 바탕으로 중용을 풀이한 책의 번역본.

공자의 가르침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제시한 유가의 경전으로 알려진 「중용」을 「고전의 한글화」란 차원에서 번역한 이 책은 선과 중용을 매개로 한 불교와 유교의 해후를 엿보게 한다. 또한 이 책은 「중용」의 원문과 함께 감산의 풀이를 한글로 옮기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원문을 감산의 입장에 따라 번역하였다.

서광사 / A5신 / 152면 / 3500원

꼬집어 본 세상

손봉호 지음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인 저자가 바라보는 일상과 사회 현실 등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글을 모아 묶었다.

삶에 진지한 되새김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는 저자는 '길 위에서' '희망의 문을 연다' '밝은 내일을 위하여' '참된 것과 착한 것' 등 네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책에서, 철학이 경이로부터 시작되듯이 글 쓰는 일도 다소간의 경이에서 비롯된다면서 "세상만사를 한번 꼬집어 보고 약간 아프게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고 싶다"고 정치·사회적 병폐와 교육현실의 안타까움, 인간 도덕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이런 꼬집음들이 독자들에게 경이를 자극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고 말한다.

철학과원실사 / A5신 / 330면 / 3800원

이 시대의 책 이야기 ③

“책을 안 읽는 모든 사람은 유괴범이다”

“책을 안 읽는 모든 사람은 유괴범이다.” 억지스럽다구요? 하지만 요즘의 세상이 이런 억지스런 말을 만들게 했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진 허튼 망상에 의해 우리의 아이들이 유괴당하고 살인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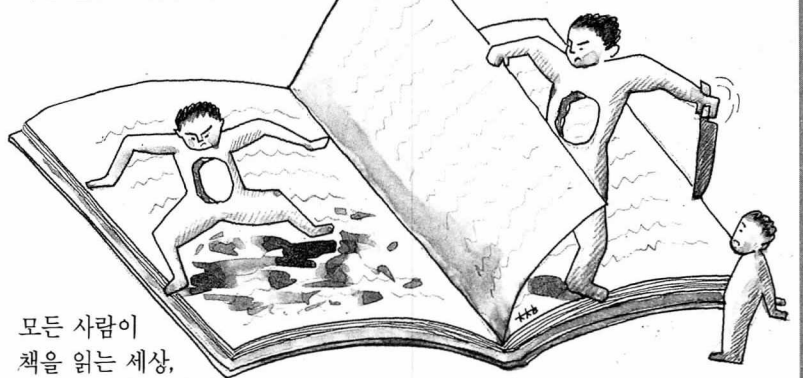
아마도 이것은 우리들의 가슴이 텅 비어서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해봅니다.

그것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마치 페타이어와도 같이 뺨 뚫린 우리들의 가슴에는 그 어떤 사랑도 자라지 못하는

까닭이지요. 그래서 바른글방은

모든 유괴범을 구하기 위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책을 읽는 세상, 유괴범이 없는 세상,

바른글방과 미필적 고의가 앞장 서서 만들겠습니다.

▶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윤문·교열·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아동물·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출력

▶ <미필적고의>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대행

▶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관 3층
전화 325-5366(대)
325-5363~5
325-6484~5
팩스 325-5362

디자인전문집단

미필적 고의